

정신지체학생의 성격 검사도구 개발을 위한 델파이 연구

김 정 은*

부산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전임연구원

강 영 심**

부산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이 미 아

부산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학과 박사수료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지체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하여 정신지체학생의 성격 특성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신지체학생들의 성격 검사도구 개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정신지체 전공교수, 소아정신과 전문의, 임상심리사, 정신지체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특수교사 등 총 24인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3차에 걸친 델파이 방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주의산만성, 긍정적 반응경향성, 순종, 충동성, 자아중심성, 외부지향성, 불안, 고집성 등 8개 영역, 76개 하위문항들이 추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정신지체학생의 성격 특성들은 정신지체학생을 위한 성격 검사도구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정신지체학생들이 보여주는 수행이나 행동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신지체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선정하고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제어 : 정신지체 학생, 정신지체 학생의 성격, 델파이 연구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신지체를 결정하는 필수적인 요소가 인지적 기능의 결핍이라는 것에는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정신지체학생의 비전형적인 행동이나 수행의 원인을 인지적 결핍으로 귀인시키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정신지체 연구의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인지적 결함

* 제 1 저자

** 교신저자 : kangys@pusan.ac.kr

이 정인지체학생의 전체 기능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간주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인지체학생의 행동이나 수행의 차이가 인지적 결함의 차이만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들이 살아온 환경이나 발달사, 사회-심리적 상호작용의 특성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즉, 정인지체에 대한 전인적, 발달적, 맥락적 접근이 대두되면서 정인지체학생의 성격이나 동기, 정서적 특성 등 비인지적인 요인들의 중요성이 언급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Harter, 1999; Printrich, Anderman, & Klobucar, 1994; Ryan, & Deci, 2000).

이 가운데 특히, 정인지체학생의 성격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Deci, & Grolnick, 1995; Stipek, 1998; Zimmerman, 2000), 정인지체학생은 비장애학생과 구별되는 독특한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들이 정인지체학생의 행동이나 수행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지고 있다. 또한 정인지체학생이 보여주는 낮은 수행과 부적응 행동들은 선천적인 특성이라기보다는 반복적인 성공경험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경험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정인지체학생의 성격 특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기는 하나 측정도구의 부재와 측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현장에서 이를 활용하는데 제한이 있다(Burack, Klaiman, & Iarocci, 2002; Switzky, 1997; Zigler, Bennett-Gates, 1999; Zigler, Bennett-Gates, & Hodapp, 2002). 우리나라의 경우, 비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격 검사도구들이 있지만 대부분이 자기보고형으로 정인지체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정인지체학생의 성격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측정도구들은 비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도구들을 수정하여 사용하거나 일부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되지 않는 도구들을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임상 현장에서 흔히 활용되고 있는 HTP 검사와 나무그림 검사, 인물화 검사 등의 투사검사들은 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있어 임상적 경험이 필요하며 평가 기준의 타당성과 신뢰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손정락, 2002). 따라서 우리나라 정인지체학생의 성격 특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면서 교육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타당성있고 종합적인 검사도구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성격 검사도구와 같은 심리검사를 개발하기 위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개발하고자 하는 도구의 구인이 어떤 하위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다(이종범, 2005; Algina, 1986; Nunnally & Bernstein, 1994). 보편적으로 이론적 근거에 기초하여 심리특성을 하위요인으로 구성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 방법은 구인과 관련된 연구들이 축적되어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진 다음에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정인지체학생의 성격특성은 성격 자체가 가지는 모호성과 복잡성뿐만 아니라 정인지체학생의 성격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의 부족, 기존 검사도구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처럼 정신지체학생의 성격 특성과 같은 새로운 개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거나 측정도구의 준거를 개발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델파이 방법이 있다(김병성, 1996; 이종성, 2001). 이 방법은 전문가 집단의 의견과 판단을 추출하고 수합하여 합의를 찾아내는 조사방법으로, 여러 전문가들의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솔직한 의견 형성을 가능하게 하고 참여 전문가들 상호간의 의견교환을 통한 상호작용의 시간이나 빈도에 제약을 덜 받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신지체학생의 성격 특성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델파이 연구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도출된 정신지체학생의 성격 특성들은 정신지체학생의 성격 검사도구 개발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정신지체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선정하고 활용하는데 기초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정신지체학생의 성격 검사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3차에 걸친 델파이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의 목적에 따라 정신지체 전공교수 5인, 소아정신과 전문의 4인, 임상심리사 5인, 정신지체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특수교사 5인, 정신지체학생의 부모 5인 등 총 24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1. 델파이(Delphi) 방법

델파이 방법은 계획된 익명의 반복적 질문지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참여자들이 직접 한데 모여서 논쟁을 하지 않고서도 집단 구성원의 합의를 유도해 낼 수 있는 일종의 집단협의 방식에 대한 대안적 조사방법이다(김병성, 1996).

이 방법은 여러 전문가들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고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교환을 가능하게 해주며 여러 의견을 통계적인 방법을 통하여 과학적인 자료로 수합하여 피드백할 수 있다. 또한 각 전문가들의 독립적이고 자유롭고 솔직한 의견 형성을 가능하게 하며 여러 가지 폭 넓은 문제, 주제 또는 영역에 적용이 가능하며 비교적 시간적으로 경비면에서 경제적인 방법이라는 장점을 지닌다(박도순, 1992). 그러나 질문지 조사방법이 지니는 한계점을 극복하지 못하는데 먼저, 전문가 선정의 대표성 문제와 자료처리 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의 문제로 연구자의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될 소지가 높다(김경동, 1986). 또한 질문지의 회수율과 성의있는 대답도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오정숙, 1997). 또한 일반적으로 일차적으로 3차 조사로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는 4, 5차까지 반복 조사를 할 경우에는 인위적인 합의가 증가될 수 있으며, 2차 조사에 그친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김병성, 199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 방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신지체 전공 교수 2인, 정신지체 전공 박사 2인 등 4인으로 구성된 복수의 연구조력자가 연구참여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모든 연구과정에 참여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 집단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3차에 걸친 설문조사 방법을 실시하였다.

2. 연구참여자

전문가 선정은 델파이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Mitchell & McGodrick, 1994). 본 연구에서는 정신지체학생의 성격 검사도구 개발을 위해 정신지체 영역에 대해 충분히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견해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먼저 전공영역이 정신지체이면서 4년제 대학에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수 5인을 선정하였는데 이들은 정신지체학생의 성격 특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론적인 측면들에 관한 충분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다양한 임상적 경험에 근거하여 정신지체학생들의 특성을 기술해 줄 수 있는 소아정신과 전문의 4인과 임상심리사 5인이 패널로 선정되었다. 셋째, 교사는 부모 다음으로 정신지체학생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정신지체학생들의 다양한 상황이나 환경에서의 성격 특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정신지체학생을 현재 담임하고 있고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특수교사 7인이 추천되었다. 마지막으로 정신지체학생의 부모 5인을 선정하였는데, 이들은 정신지체학생들의 생육사를 비롯하여 교사나 다른 전문가들이 파악할 수 없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고 가장 자연스러운 환경에서의 성격이나 행동특성들을 제시해 줄 수 있음으로 선정되었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연구자들에 의해 작성된 1, 2, 3차 설문지를 활용되었으며 각 차시에 이용된 설문지는 다음과 같다.

먼저, 1차 설문지는 연구참여자들이 편견이나 선입견없이 자신의 견해를 보다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개방형 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작성된 설문지는 정신지체 전공 교수 1인과 정신지체 전공 박사 1인에 의해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으며 검토결과에 따라 내용이 수정, 보완되었다.

둘째, 2차 설문지는 1차 조사에서 정신지체학생의 성격특성에 대해 기술된 내용을 유목화하여 5점 척도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응답자는 각 문항의 중요도를 리커트 5점

척도로 체크하도록 하였고 각 문항 끝에는 1차 조사에서 각 문항을 언급한 전문가의 수를 제시하여 각 항목의 중요도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3차 설문지는 2차 조사의 결과에 따라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각 문항의 평균값을 제시하여 응답자가 각 항목의 중요도를 재평가하도록 하였다.

4.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예비조사, 1, 2, 3차에 걸쳐 조사가 진행되었다.

먼저, 예비조사는 1차 개방형 설문지에 대한 참여자들의 응답률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하여 P시 소재 정신지체학교 교사 20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와 함께, 1차 설문지는 정신지체 전공교수 2인과 정신지체 전공 박사 2인에 의해 검토되어 수정, 보완되었다. 1차 조사 설문지의 배부와 회수는 대부분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이루어졌고 지리적 여건 등 부득이한 경우만 우편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2, 3차 조사의 설문지 배부와 회수도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에 대한 부가 설명을 하였다. 방문하지 못하고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전화통화를 통해 연구자의 의도와 설문지의 구성 등을 설명하였다.

5. 자료분석

정신지체학생의 성격 특성에 관한 문항을 개발하기 위해 회수된 자료는 빈도와 평균, 표준편차, 편포도, 용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사용된 통계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차 조사는 서술식으로 응답되었고 2차 설문지를 작성하기 위해 응답내용에 기초해서 서술된 내용을 유목화하여 각 유목에 대한 빈도를 계산하였다. 2차 조사에서는 1차에서 서술된 내용을 유목화하여 정신지체학생의 성격특성에 관한 내용을 5점 척도 문항으로 구성하여 각 문항의 중요도를 체크하도록 하였다. 2차 조사의 통계처리를 위하여 각 항목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3차 조사에서는 2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5점 척도의 문항으로 제공하였고 통계처리는 각 항목의 평균값과 표준편차, 편포도, 용도를 계산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처리를 위해서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1차 설문조사 결과

1차 설문조사에서는 정인지체학생의 성격 검사도구의 문항에 관해 연구참여자들의 의견을 개방형으로 조사하였다. 응답의 형태는 평가준거의 상위영역을 구분한 형태와 구분하지 않은 형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그림 1은 응답의 예이다. 예 1은 상위영역을 구분한 경우이고, 예 2는 구분하지 않고 하위문항만을 서술한 경우이다.

<응답의 예 1>	
(충동성) · 쉽게 포기한다. · 말보다 행동이 앞선다. ·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 욕구좌절에 대한 내성이 약하다.	(모방) · 다른 친구가 하는 대로 과제를 수행한다. · 또래가 하는 말을 따라한다. · 흉내내는 걸 아주 좋아한다.
<응답의 예 2>	
· 새로운 일을 싫어한다. · 야단맞아도 같은 일을 한다. · 잘 운다.	· 원하는 것을 주면 금방 풀린다. · 하고 싶은 말이나 행동을 참지 못한다. · 할 수 있는 일도 다른 친구들을 따라한다.

<그림 1> 응답의 예

연구참여자들의 모든 응답은 평서형으로 진술되었고 상위영역을 제시하지 않은 응답도 포함되어 있었다. 상위영역을 제시한 진술을 토대로 상위영역을 나누고 상위영역이 표시되지 않은 응답들은 정인지체 전공 교수 1인과 정인지체 전공 박사 2인과 임상심리사 2인의 자문을 구해서 구분하였다. 영역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참여자와의 메일이나 전화통화를 통해 의견을 교환한 후 상위영역과 하위문항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정인지체학생의 성격 검사도구에 관한 내용들은 8개 상위영역과 76개의 하위문항으로 정리되었다. 각 항목의 빈도수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III-1>과 같다.

<표 III-1>

1차 설문조사 결과

영역	문항	빈도
주의산만	1. 손이나 팔을 쉴 새 없이 흔든다	2
	2. 주의집중 시간이 짧아 과제수행이 어렵다.	5
	3.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돌아다닌다.	5
	4. 한 활동을 오래하지 못한다	4
	5. 지시문이나 질문을 대충 읽거나 듣고 오답을 말한다	4
	6. 혼나도 금방 잊어버리고 그 행동을 다시 한다.	4
	7. 자기 혼자서는 일을 완성하지 못한다.	4
긍정적 반응경향성	8. 끊임없이 관심과 칭찬을 받고 싶어한다.	3
	9. 교사와 손을 잡거나, 포옹하는 등 스킨십을 좋아한다.	3
	10. 관심을 받으려고 선생님을 계속 부른다.	4
	11. 잘못하지 않은 일에도 사과한다.	3
	12. 자신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한다.	4
	13. 처음 보는 사람과 쉽게 친해진다.	2
	14.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면 무엇이든 한다.	4
순종	15. 또래들이 괴롭혀도 저항하지 못한다.	3
	16. 하고 싶은 말이나 행동을 참지 못한다.	
	17.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	3
	18. 자발적으로 활동을 선택하지 못하고 지시를 기다린다.	3
	19. 친구들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	4
	20. 교사가 시키는 대로 한다.	2
	21. 하고자 하는 의욕이 부족하다.	3
	22. 먹을 것이 있어도 지시가 없으면 먹지 않는다.	3
	23. 친구나 또래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한다.	3
	24.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라도 다른 친구들이 가지고 있으면 산다.	4
	25. 다른 아이들이 하는 활동을 보고 그대로 따라한다.	4
26. 다른 사람들의 특성을 모방하여 흉내내기를 좋아한다.	3	
총동성	27. 작은 일에 쉽게 흥분하고 의기소침해 한다.	4
	28. 조금만 어렵다고 생각하면 쉽게 포기한다.	3
	29. 많은 것에 호기심을 보인다.	4
	30. 실패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	2
	31.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	2
	32.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2
	33.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	3
	34. 잘못하여 혼이 나도 그때뿐이다.	3
	35. 원하는 것을 얻으면 금방 기분이 풀린다.	3
	36. 깊이 생각하지 않고 행동한다.	3
	37. 뜻대로 안되면 공격적인 행동이나 욕을 한다.	2
38. 묻는 질문에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네 혹은 아니오"라고 대답한다.	4	
39. 하고 싶은 말이나 말이나 행동을 참지 못한다.	4	
자아중심성	40.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한다.	3
	41. 칭찬을 잘 한다.	
	42. 외부 자극을 공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4
	43. 질문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기 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한다.	2
	44.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6
	45. 비슷한 상황에서는 항상 같은 반복된 행동이나 말을 한다.	3
	46.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공감하지 못한다.	3
	47. 반복적으로 하는 활동들은 지시없이 스스로 한다.	2

<표 III-1>에서 계속

영역	문항	빈도
외부지향성	48. 과제를 수행하면서 친구나 선생님의 얼굴을 자주 쳐다본다.	2
	49. 낯선 사람이 있을 때 주의끄는 행동을 한다.	4
	50. 친구보다 어른을 좋아한다.	4
	51. 야단을 맞으면 더 잘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아예 활동을 하지 않는다.	3
	52. 칭찬해주면 자신감 있게 행동한다.	4
	53. 잘한다고 칭찬하면, 그 일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3
	54. 강화물을 제공하면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한다.	4
	55. 작은 칭찬이나 격려에도 감동받는다.	3
	56. 교사의 작은 지적에도 잘 울거나 풀이 죽는다.	4
	57. 할 수 있는 일도 교사의 반응을 보고 행동을 결정한다.	2
불안	58. 친한 친구나 부모, 교사의 얼굴 표정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3
	59. 도움이 필요없는 경우에도 도움을 요청한다.	2
	60. 잘 못하는 과제는 의도적으로 피한다.	3
	61. 낯선 사람을 지나치게 경계한다.	3
	62. 행동의 결과를 남의 탓으로 돌린다.	3
	63. 교사가 1:1로 질문을 할 경우 당황스러워 한다.	2
	64. 야단맞는 것을 피하기 위해 빠른 거짓말을 한다.	4
	65. 처음 보는 사람에게 대해 두려움을 표시한다.	2
	66. 눈을 맞추는 것을 수줍어한다.	5
	67. 손에 항상 무엇인가를 잡고 다닌다.	4
고집성	68. 어두운 것을 무서워한다.	4
	69. 새롭거나 처음 하는 일에 두려움을 보인다.	3
	70. 다른 일에 집중하면 이외의 것에는 관심이 없다.	3
	71. 생활패턴이 바뀌면 싫어한다.	4
	72.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때를 쓴다.	5
	73. 가방 안에 항상 책이나 공책 등을 가득 넣어 다닌다.	3
	74. 싫어하는 활동은 하지 않는다.	3
	75.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과제만 한다.	4
	76. 자신의 물건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4

1차 설문조사 결과, 정인지체학생 성격 특성에 관한 연구참여자들의 진술 내용이 유사한 부분도 있었으나 상이함을 보여주는 문항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성격이라는 개념이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차 설문조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정인지체학생의 성격 검사도구는 외공 정적 반영경향성, 순종, 충동성, 자아중심성, 외부지향성, 불안, 고집성 영역으로 나뉘었고 76개의 하위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의산만성 영역은 정인지체학생들이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 주의를 집중하지

못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내용들로 구성되었으며 총 7문항이다. 둘째, 긍정적 반응경향성 영역은 주로 타인과의 신체적 접촉을 좋아하고 사람을 잘 따르고 칭찬이나 격려에 의존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내용들로 구성되었으며 총 7문항이다. 셋째, 순종 영역은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사나 친구들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거나 교사의 지시를 잘 따르는 등의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 넷째, 충동성 영역은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로 감정조절의 어려움과 관련된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다섯째, 자아중심성 영역은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로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이나 말을 하는 등 타인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행동특성들을 포함하고 있다. 여섯째, 외부지향성은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스스로 활동을 선택하지 못하고 타인의 행동, 강화 등에 의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특성을 설명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일곱째, 불안 영역은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로 타인과의 관계에 소극적이거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특성을 보이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고집성 영역은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나 과제, 물건 등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을 보이는 특성을 보이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2. 2차·3차 설문조사 결과

2차 설문지는 1차 조사에서 서술된 내용을 유목화하여 리커트 5점 척도로 제시하였다. “매우 중요하다”를 5점, “중요하다”를 4점, “보통이다”를 3점, “별로 중요치 않다”를 2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를 1점으로 했을 때, 정신지체학생의 성격 검사도구에 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것이다. 2차 설문조사 결과, 정신지체학생의 성격 검사도구의 모든 항목의 전체 평균 3.89, 표준편차는 .16으로, 총 76문항 대부분 .30(보통이다) 이상의 평균값을 보여 각 항목들간의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3차 설문조사에서는 정신지체학생의 성격 검사도구에 관한 항목들에 2차 설문조사의 결과(평균값)를 함께 제시하여 각 항목의 중요도를 재평가하였다. 3차 설문조사의 결과, 전체 76문항의 평균값은 3.96, 표준편차는 .17로 76문항의 중요도나 적합성이 높게 나타났다. 편포도는 -.15로 부적변포(비대칭적이면서 사례들이 오른쪽, 즉 고점수 쪽으로 치우쳐 있는 분포)를 나타내고, 분포가 어느 정도 뾰족한가를 나타내는 용도는 분포의 뾰족함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 \pm 2$ 를 기준으로 볼 때(Huck & Cormier, 1996) 연구 참여자들의 합의정도가 높다(참용)고 할 수 있다.

정신지체학생의 성격 검사도구의 하위 문항에 관한 2차, 3차 설문조사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평균 3.89에서 3.96으로 높아졌고, 편차가 .16에서 .17로 조금 커졌다. 그러나 그 차이는 크지 않으므로 각 문항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의견에 편차가 큰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3차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각 영역별 통계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 2차 설문조사의 통계량은 ()로 표시하였다.

1) 주의산만성 영역의 2, 3차 설문조사 결과

주의산만성 영역의 대부분의 문항에서 3차 설문조사의 평균값이 2차 설문조사의 평균값과 같거나 보다 높게 평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의산만성 영역에 해당하는 하위 문항들에 대한 평점결과 및 합의 정도를 3차 설문조사의 평균, 표준편차, 편포도, 용도를 바탕으로 분석하면 <표 III-2>와 같다.

<표 III-2> 주의산만성 영역의 2차, 3차 설문조사 결과(평균, 표준편차, 편포도, 용도)

상위 영역	문항	평균	표준편차	편포도	용도
주의 산만성	1. 손이나 팔을 쉴 새 없이 흔든다.	3.15(2.57)	.49(.51)	.55	-.90
	2. 주의집중 시간이 짧아 과제수행이 어렵다.	4.17(4.14)	.55(.50)	-.04	.83
	3.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돌아다닌다.	3.29(3.29)	.55(.55)	1.91	1.79
	4. 한 활동을 오래하지 못한다	4.00(4.00)	.42(.36)	-.04	.82
	5. 지시문이나 질문을 대충 읽거나 듣고 오답을 말한다	3.63(3.63)	.50(.50)	.00	4.03
	6. 혼나도 금방 잊어버리고 그 행동을 다시 한다.	4.13(4.00)	.42(.36)	-.20	1.46
	7. 자기 혼자서는 일을 완성하지 못한다.	4.14(4.14)	.42(.42)	-.04	.83
전 체		3.79(3.68)	.20(19)	-.00	1.00

* (): 2차 설문조사의 통계량

주의산만성 영역의 문항들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주의집중 시간이 짧아 과제수행이 어렵다’는 문항이 평균값이 4.17로 가장 높은 반면에 ‘손이나 팔을 쉴 새 없이 흔든다’는 문항은 3.15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의산만성 영역의 하위 문항 모두 평균 3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설문지가 5점 척도임을 감안할 때, 3점 이상이면 평균값보다 높기 때문에 평가준거로서의 중요도 및 적합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주의산만성 영역의 전체 편포도와 용도 값은 -.00(부적편포), 1.00(침용)으로 응답자간 합의 정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2) 긍정적 반응경향성 영역의 2, 3차 설문조사 결과

긍정적 반응경향성 영역의 대부분의 문항에서 3차 설문조사의 평균값이 2차 설문조사의 평균값과 같거나 보다 높게 평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긍정적 반응경향성 영역에 해당하는 하위 문항들에 대한 평점결과 및 합의 정도를 3차 설문조사의 평균, 표준편차, 편포도, 용도를 바탕으로 분석하면 <표 III-3>과 같다.

<표 III-3> 긍정적 반응경향성 영역의 2차, 3차 설문조사 결과(평균, 표준편차, 편포도, 용도)

상위 영역	문항	평균	표준편차	편포도	용도
긍정적 반응경향성	8. 끊임없이 관심과 칭찬을 받고 싶어한다.	3.54(3.54)	.34(.34)	-.65	6.34
	9. 교사와 손을 잡거나, 포옹하는 등 스킨십을 좋아한다.	3.79(3.79)	.45(.45)	2.42	4.21
	10. 관심을 받으려고 선생님을 계속 부른다.	3.75(3.75)	.55(.55)	.07	.13
	11. 잘못하지 않은 일에도 사과한다.	3.13(3.13)	.58(.58)	-1.07	.31
	12. 자신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한다.	4.13(4.00)	.62(.59)	.04	-.11
	13. 처음 보는 사람과 쉽게 친해진다.	3.58(3.12)	.58(.48)	-1.07	.30
	14.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면 무엇이든 한다.	3.00(2.96)	.46(.42)	.18	2.50
전 체		3.56(3.54)	.19(.18)	-.08	.26

* (): 2차 설문조사의 통계량

긍정적 반응경향성 영역의 문항들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자신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한다.’는 문항이 4.13으로 평균값이 가장 높은 반면에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면 무엇이든 한다.’는 문항은 3.00으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문항이 모두 “보통이다(평점 3)”의 수준 이상으로 문항으로서의 중요도 및 적합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긍정적 반응경향성 영역의 전체 편포도와 용도 값은 -.08(부적편포), .26(첨용)으로 응답자간 합의 정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3) 순종 영역의 2, 3차 설문조사 결과

순종 영역의 대부분의 문항에서 3차 설문조사의 평균값이 2차 설문조사의 평균값과 같거나 보다 높게 평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순종 영역에 해당하는 하위 문항들에 대한 평점결과 및 합의 정도를 3차 설문조사의 평균, 표준편차, 편포도, 용도를 바탕으로 분석하면 <표 III-4>와 같다.

순종 영역의 문항들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친구들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는 문항이 4.00으로 평균값이 가장 높은 반면에 ‘먹을 것이 있어도 지시가 없으면 먹지 않는다.’는 문항은 2.52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2번 문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항이 모두 “보통이다(평점 3)”의 수준 이상으로 문항으로서의 중요도 및 적합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순종 영역의 전체 편포도와 용도 값은 -.16(부적편포), .89(첨용)로 응답자간 합의 정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III-4> 순종 영역의 2차, 3차 설문조사 결과(평균, 표준편차, 편포도, 용도)

상위 영역	문항	평균	표준편차	편포도	용도
순종	15. 또래들이 괴롭혀도 저항하지 못한다.	3.29(3.29)	.70(.70)	-.58	1.05
	16. 하고 싶은 말이나 행동을 참지 못한다.	3.54(3.54)	.36(.36)	-.65	6.34
	17.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	3.96(3.58)	.48(.48)	-.52	1.06
	18. 자발적으로 활동을 선택하지 못하고 지시를 기다린다.	3.98(3.98)	.51(.51)	-2.54	6.26
	19. 친구들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	4.00(4.00)	.44(.44)	-1.53	.38
	20. 교사가 시키는 대로 한다.	3.92(3.54)	.51(.46)	.00	1.54
	21. 하고자 하는 의욕이 부족하다.	3.96(3.96)	.38(.38)	-1.91	1.79
	22. 먹을 것이 있어도 지시가 없으면 먹지 않는다.	2.52(2.13)	.46(.29)	.98	-1.15
	23. 친구나 또래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한다.	3.54(3.54)	.56(.56)	-.37	-.90
	24.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라도 다른 친구들이 가지고 있으면 산다.	3.29(3.13)	.52(.48)	-.02	1.51
	25. 다른 아이들이 하는 활동을 보고 그대로 따라한다.	3.96(3.96)	.56(.56)	-.56	-.74
	26. 다른 사람들의 특성을 모방하여 흉내내기를 좋아한다.	3.13(3.13)	.53(.53)	.10	-.80
전체		3.56(3.49)	.18(.14)	-.16	.89

* (): 2차 설문조사의 통계량

4) 충동성 영역의 2, 3차 설문조사 결과

충동성 영역의 대부분의 문항에서 3차 설문조사의 평균값이 2차 설문조사의 평균값과 같거나 보다 높게 평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충동성 영역에 해당하는 하위 문항들에 대한 평점결과 및 합의 정도를 3차 설문조사의 평균, 표준편차, 편포도, 용도를 바탕으로 분석하면 <표 III-5>와 같다.

<표 III-5> 충동성 영역의 2차, 3차 설문조사 결과(평균, 표준편차, 편포도, 용도)

상위 영역	문항	평균	표준편차	편포도	용도	
충동성	27. 작은 일에 쉽게 흥분하고 의기소침해 한다.	3.63(3.63)	.51(.51)	.38	.37	
	28. 조금만 어렵다고 생각하면 쉽게 포기한다.	4.21(3.96)	.56(.54)	.06	.24	
	29. 많은 것에 호기심을 보인다.	3.29(3.29)	.46(.46)	-.18	2.50	
	30. 실패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	4.00(4.00)	.51(.51)	.00	1.54	
	31.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	3.42(3.58)	.36(.33)	.65	6.34	
	32.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3.54(3.54)	.20(.20)	4.90	24.00	
	33.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	3.63(3.63)	.28(.28)	-3.22	9.12	
	34. 잘못하여 혼이 나도 그때뿐이다.	3.63(3.58)	.51(.46)	.00	1.54	
	35.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금방 기분이 풀린다.	3.42(3.13)	.58(.52)	-.01	.30	
	36. 깊이 생각하지 않고 행동한다.	3.79(3.79)	.70(.83)	-.88	.71	
	37. 뜻대로 안되면 공격적인 행동이나 욕을 한다.	3.29(3.14)	.62(.59)	.042	-.11	
	38. 묻는 질문에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네 혹은 아 니오”라고 대답한다.	3.29(3.29)	.44(.44)	-1.53	.38	
	39. 하고 싶은 말이나 행동을 참지 못한다.	3.54(3.54)	.46(.41)	-.18	2.50	
	전체		3.55(3.50)	.14(.12)	-.19	.21

* (): 2차 설문조사의 통계량(빈도분포도)

충동성 영역의 문항들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조금만 어렵다고 생각하면 쉽게 포기한다’는 문항이 4.21로 평균값이 가장 높은 반면에 ‘뜻대로 안되면 공격적인 행동이나 욕을 한다.’는 문항은 3.2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문항이 모두 “보통이다(평점 3)”의 수준 이상으로 문항으로서의 중요도 및 적합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충동성 영역의 전체 편포도와 용도 값은 -.19(부적편포), .21(첨용)로 응답자간 합의 정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5) 자아중심성 영역의 2, 3차 설문조사 결과

자아중심성 영역의 대부분의 문항에서 3차 설문조사의 평균값이 2차 설문조사의 평균값과 같거나 보다 높게 평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아중심성 영역에 해당하는 하위 문항들에 대한 평점결과 및 합의 정도를 3차 설문조사의 평균, 표준편차, 편포도, 용도를 바탕으로 분석하면 <표 III-6>과 같다.

<표 III-6> 자아중심성 영역의 2차, 3차 설문조사 결과(평균, 표준편차, 편포도, 용도)

상위 영역	문항	평균	표준편차	편포도	용도
자아 중심성	40.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한다.	3.54(3.54)	.50(.50)	-.07	1.19
	41. 칭찬을 잘 한다.	3.13(2.96)	.48(.44)	-.09	1.56
	42. 외부 자극을 공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3.13(2.94)	.48(.46)	.54	.11
	43. 질문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기 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한다.	3.63(3.63)	.54(.54)	.08	.33
	44.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3.17(3.17)	.60(.60)	-.12	-.42
	45. 비슷한 상황에서는 항상 같은 반복된 행동이나 말을 한다.	3.79(3.79)	.50(.50)	.25	.73
	46.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공감하지 못한다.	3.63(3.54)	.44(.39)	.52	1.74
	47. 반복적으로 하는 활동들은 지시없이 스스로 한다.	3.84(3.84)	.49(.49)	-.05	1.37
전체		3.48(3.43)	.26(.29)	-.22	.21

* (): 2차 설문조사의 통계량

자아중심성 영역의 문항들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비슷한 상황에서는 항상 같은 반복된 행동이나 말을 한다’는 문항이 3.79로 평균값이 가장 높은 반면에 ‘칭찬을 잘 한다’, ‘외부 자극을 공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문항은 3.13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문항이 모두 “보통이다(평점 3)”의 수준 이상으로 문항으로서의 중요도 및 적합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아중심성 영역의 전체 편포도와 용도 값은 -.22(부적편포), .21(첨용)로 응답자간 합의 정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6) 외부지향성 영역의 2, 3차 설문조사 결과

외부지향성 영역의 대부분의 문항에서 3차 설문조사의 평균값이 2차 설문조사의 평균값과 같거나 보다 높게 평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외부지향성 영역에 해당하는 하위 문항들에 대한 평점결과 및 합의 정도를 3차 설문조사의 평균, 표준편차, 편포도, 용도를 바탕으로 분석하면 <표 III-7>과 같다.

<표 III-7> 외부지향성 영역의 2차, 3차 설문조사 결과(평균, 표준편차, 편포도, 용도)

상위 영역	문항	평균	표준편차	편포도	용도
외부 지향성	48. 과제를 수행하면서 친구나 선생님의 얼굴을 자주 쳐다본다.	3.58(3.58)	.20(.20)	4.90	24.00
	49. 낯선 사람이 있을 때 주의를 끄는 행동을 한다.	4.00(4.00)	.48(.48)	-.52	1.06
	50. 친구보다 어른을 좋아한다.	3.63(3.63)	.42(.42)	.00	4.03
	51. 야단을 맞으면 더 잘하려고 노력하기 보다 아예 활동을 하지 않는다.	3.63(3.54)	.38(.34)	1.91	1.79
	52. 칭찬해주면 자신감 있게 행동한다.	3.43(3.54)	.55(.46)	.04	.83
	53. 잘한다고 칭찬하면,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한다	3.29(3.13)	.54(.50)	.14	.74
	54. 강화물을 제공하면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한다.	3.29(3.29)	.34(.34)	-2.42	4.21
	55. 작은 칭찬이나 격려에도 감동받는다.	3.63(3.54)	.54(.45)	-1.54	.74
	56. 교사의 작은 지적에도 잘 울거나 풀이 죽는다.	3.87(3.87)	.46(.41)	-.18	2.50
	57. 할 수 있는 일도 교사의 반응을 보고 행동을 결정한다.	3.63(3.54)	.54(.50)	.14	.74
	58. 친한 친구나 부모, 교사의 얼굴 표정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3.54(3.54)	.55(.55)	.07	.13
59. 도움이 필요없는 경우에도 도움을 요청한다.	3.63(3.63)	.51(.51)	.38	.37	
전체		3.60(3.44)	.16(14).	-.19	.21

* (): 2차 설문조사의 통계량

외부지향성 영역의 문항들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낯선 사람이 있을 때 주의를 끄는 행동을 한다’는 문항이 4.00으로 평균값이 가장 높은 반면에 ‘강화물을 제공하면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한다’는 문항은 3.2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문항이 모두 “보통이다(평점 3)”의 수준 이상으로 문항으로서의 중요도 및 적합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외부지향성 영역의 전체 편포도와 용도 값은 -.19(부적편포), .21(첨용)로 응답자간 합의 정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7) 불안 영역의 2, 3차 설문조사 결과

불안 영역의 대부분의 문항에서 3차 설문조사의 평균값이 2차 설문조사의 평균값과 같거나 보다 높게 평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불안 영역에 해당하는 하위 문항들에 대한

평점결과 및 합의 정도를 3차 설문조사의 평균, 표준편차, 편포도, 용도를 바탕으로 분석하면 <표 III-8>과 같다.

<표 III-8> 불안 영역의 2차, 3차 설문조사 결과(평균, 표준편차, 편포도, 용도)

상위 영역	문항	평균	표준편차	편포도	용도
불안	60. 잘 못하는 과제는 의도적으로 피한다.	3.83(3.83)	.52	.21	-.67
	61. 낯선 사람을 지나치게 경계한다.	3.53(3.53)	.58	.00	.06
	62. 행동의 결과를 남의 탓으로 돌린다.	3.13(2.54)	.62	-.09	-.37
	63. 교사가 1:1로 질문을 할 경우 당황스러워 한다.	3.54(3.54)	.53	-.02	.88
	64. 야단맞는 것을 피하기 위해 뻔한 거짓말을 한다.	3.17(3.17)	.59	-.22	.33
	65. 처음 보는 사람을 두려워한다.	3.13(3.13)	.57	.012	.05
	66. 눈을 맞추는 것을 수줍어한다.	3.63(3.63)	.51	.31	-.14
	67. 항상 무엇인가를 잡고 다닌다.	2.13(2.13)	.60	-.46	-.63
	68. 어두운 것을 무서워한다.	3.29(3.13)	.59	.11	.71
	69. 새롭거나 처음 하는 일에 두려움을 보인다.	3.83(3.83)	.52	.05	.60
전체		3.32(3.32)	.30(.28)	-.33	.59

* (): 2차 설문조사의 통계량

불안 영역의 문항들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잘 못하는 과제는 의도적으로 피한다’, ‘새롭거나 처음 하는 일에 두려움을 보인다’는 문항이 3.83으로 평균값이 가장 높은 반면에 ‘항상 무엇인가를 잡고 다닌다’는 문항은 2.13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7번 문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항이 모두 “보통이다(평점 3)”의 수준 이상으로 문항으로서의 중요도 및 적합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불안 영역의 전체 편포도와 용도 값은 -.33(부적편포), .59(침용)로 응답자간 합의 정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8) 고집성 영역의 2, 3차 설문조사 결과

고집성 영역의 대부분의 문항에서 3차 설문조사의 평균값이 2차 설문조사의 평균값과 같거나 보다 높게 평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집성 영역에 해당하는 하위 문항들에 대한 평점결과 및 합의 정도를 3차 설문조사의 평균, 표준편차, 편포도, 용도를 바탕으로 분석하면 <표 III-9>와 같다.

고집성 영역의 문항들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른 일에 집중하면 이외의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문항이 3.79로 평균값이 가장 높은 반면에 ‘가방 안에 항상 책이나 공책 등을 가득 넣어 다닌다’는 문항은 2.13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73번 문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항이 모두 “보통이다(평점 3)”의 수준 이상으로 문항으로서의 중요도 및 적합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고집성 영역의 전체 편포도와 용도 값은

-.19(부적편포), .21(침용)로 응답자간 합의 정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III-9> 고집성 영역의 2차, 3차 설문조사 결과(평균, 표준편차, 편포도, 용도)

상위 영역	문항	평균	표준편차	편포도	용도
고집성	70. 다른 일에 집중하면 이외의 것에는 관심이 없다.	3.79(3.79)	.51	.38	.37
	71. 생활패턴이 바뀌면 싫어한다.	3.54(3.54)	.46	-.18	2.50
	72.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때를 쓴다.	3.63(3.13)	.34	2.42	4.21
	73. 가방 안에 항상 책이나 공책 등을 가득 넣어 다닌다.	2.13((2.17)	.65	-1.35	.81
	74. 싫어하는 활동은 하지 않는다.	3.13(2.94)	.20	-4.90	22.40
	75.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과제만 한다.	3.54(3.54)	.51	.00	1.54
	76. 자신의 물건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3.63(3.63)	.58	-.017	2.95
전체		.332(3.23)	.14(.12)	-.19	.21

* (): 2차 설문조사의 통계량

IV. 논의

본 연구는 델파이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정인지체학생들의 성격 특성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정인지체학생을 위한 성격 검사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을 선행연구들과 관련지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정인지체학생의 성격 검사도구 개발을 위하여 26인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델파이 연구를 실시하였다. 델파이 연구는 통제된 수차례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특정분야의 전문가들의 합의를 찾아내는 조사방법으로, 주로 측정기준이나 교육과정 개발, 교육목표와 목적 조사 등에 활용되고 있다(김병성, 1996; 이종성, 2001). 이러한 델파이 방법을 위해 필요한 표본 집단의 크기, 즉, 참가자의 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델파이 패널의 크기는 신뢰성과 그룹의 평균오차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오차를 최소화하고 그룹의 신뢰성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10의 패널이 필요하며(Ewing, 1990), Anderson(1997)은 10-20명의 소집단패널만으로도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4명의 패널로 구성된 연구참여자들의 합의에 의한 결과이므로 연구의 결과가 신뢰롭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델파이 연구에서는 연구주제와 관련된 그 분야의 전문가로 패널을 구성하는데 이때 패널의 선정 문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연구참여자의 대표성, 적절성, 전문적 지식과 능력, 성실성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Mitchell & McGoldrick, 1994). 본 연구에서는 정인지체학생의 성격 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을 선정하기 위하

여 정신지체 전공 교수 2인, 정신지체 전공 박사 2인의 추천을 받아 정신지체학생을 담임하고 있는 특수교사, 부모, 소아정신과 전문의, 임상심리사, 정신지체 전공 교수 등으로 구성된 24인의 패널을 선정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실제 정신지체학생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많은 다양한 집단의 전문가들을 패널로 하여 이들의 성격 특성을 추출하였으므로 우리나라 정신지체학생의 성격특성을 고려한 문항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정신지체학생의 성격 특성은 8개 상위영역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의산만성, 긍정적 반응경향성, 순종, 외부지향성, 충동성, 자아중심성, 불안, 고집성 영역으로 구분되었다. 2차, 3차 설문조사 결과 전체 평균값이 .89, -.96으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먹을 것이 있어도 지시가 없으면 먹지 않는다(2.52)’, ‘항상 무엇인가를 잡고 다닌다(2.13)’, ‘가방 안에 항상 책이나 공책 등을 가득 넣어 다닌다(2.13)’는 3.0(보통이다) 이하의 문항인데 이러한 문항들은 정신지체학생의 성격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내용이라기보다는 1차 조사에서 1-2명의 전문가가 제시한 내용으로 정신지체학생 개인의 독특한 특성을 나타내는 문항들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후속 연구로 표본을 확대하여 타당화작업을 거친다면 본 연구 결과와 상이한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넷째,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8개 하위요인 중에서 4개 영역인 외부지향성, 순종, 긍정적 반응경향성 영역은 Zigler-Bennett-Gates와 Hodapp(1999)이 정신지체학생의 성격 특성에 관한 연구들을 기초로 개발한 성격검사도구인 EZPQ의 하위 요인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본 연구에서는 충동성, 불안, 주의산만성, 고집성 영역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충동성과 불안 영역은 주로 인물화검사나 HTP, 나무그림검사 등의 투사검사를 이용하여 연구들(백혜정, 1999; 서강석, 1993; 유희성, 2002)에서 정신지체학생들의 심리적 특성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정신지체학생들은 비장애 학생들보다 충동성이나 불안, 욕구좌절 등의 심리적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용 인성검사인 K-PIC의 불안척도가 포함되어 있고 아동과 청소년의 행동을 평가하기 위한 K-CBCL에서도 정서불안정 척도와 불안척도, 주의집중문제 척도가 포함되어 있어 충동성이나 불안, 주의산만성 영역이 성격을 나타내는 영역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2, 3차에 걸쳐 전문가 집단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 정신지체학생들의 성격을 구성하는 상위 영역과 각 영역에 적합한 문항들을 추출해 내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정신지체학생들의 성격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도구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정신지체학생의 성격 검사도구가 얼마나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많은 수의 표본을 확보

하여 검사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산출하고 나아가 기준개발까지 이루어진다면 현장에서의 활용성과 그 효용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밝혀진 정신지체학생의 성격 특성들을 고려하여 정신지체학생들의 긍정적인 성격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실시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개방형 설문지를 통해 하위 문항을 개발하였으므로 정신지체학생의 성격에 관한 이론적인 고찰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특성들이 간과될 수 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 본 연구의 결과와 함께 이론적 고찰을 통해 나타나는 특성들이 보완된다면 좀 더 타당한 검사도구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동(1986). 공공정책환경 변화에 관한 델파이 연구. *행정문제논집*, 11(1), 163-188.
- 김병성(1996). *교육연구방법*. 서울: 학지사.
- 박도순(1992). *교육연구방법론*. 서울: 문음사.
- 백혜정(1999). 나무 그림 형태분석을 통한 특수학교 정신지체아의 심리적 특성. 석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 서강석(1993). 교육가능 정신지체아의 나무그림에 나타난 심리적 특성. 석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 손정락(2002). *성격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 오정숙(1997). 네트워크 리더러시의 정의와 능력에 관한 델파이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유희성(2002). 정신지체아동의 인물화에 나타난 심리적 표현 특성.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 이종범(2005). 초등학교 진로발달 검사도구의 개발 및 타당화.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이종성(2001). *델파이 방법*. 서울: 교육과학사.
- Algina, M.(1986). Aguide for instrument development and validation.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hy*, 36, 789-800.
- Anderson, E. T.(1997). *Language testing in the 1900's: The communicative*. London: Modern English Publication and The British Council.
- Burack, M. A., Klaiman, A., & Iarocci, E.(2002) The strange and wonderful symbiosis of motivation and cogni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gnitive Education Mediated Learning*, 2, 186-197.
- Deci, E. L., & Grolnick, A.(1995). Hypothesis for development of a behavioral phenotype in Williams syndrome. *American Journal of Medical Genetics*, 36, 126-131.
- Deci, E. L., & Ryan, R. M.(1991). *A motivational approach to self: Integration in personality*. In R. Dienstbier(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Vol. 38, Perspectives on motivation*.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Dweck, C. S.(1999). *Self-theories: Their role in motivation, personality, and development*. Philadelphia: Taylor & Francis.
- Ewing, D. M.(1990). Future competencies needed in the preparation of secretes in state of

- Illinois using the Delphi techniqu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owa.
- Gollwitzer, P. M., & Bargh, J. A.(1996). *The psychology of action: Linking cognition and motivation to behavior*. New York: The Guildford Press.
- Harter, S.(1999). *The construction of the self: A developmental perspective*. New York: Guilford.
- Mitchell, M., & McGoldrick, A.(1994). *Delphi: critical review*.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 Nunnally, J. C., & Bernstein, I. H.(1994). *Psychometric theory*(3rd ed.). New York: McGraw-Hill.
- Printrich, P. R., Anderman, E. M., & Klobucar, C.(1994). Intraindividual difference in motivation and cognition in students with without learning disabilities.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27*, 360-370.
- Ryan, R. M., & Deci, E.(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 68-78.
- Stipek, D. J.(1998). *Motivation to learn*, Boston: Allyn and Bacon.
- Switzky, H. N.(1997). Individual difference in personality and motivation system in person with mental retardation. In W.E. MacLean, Jr.(Ed.), *Ellis' handbook of mental deficiency, psychological theory and research*.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Zimmenman, B. J.(2000). Attaining self-regulation: A social cognitive perspective. In M. Boekaerts, P. R. Pintrich, & M. Zeinder(Eds.), *Handbook of self regulation*(pp. 43-132).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Zigler, E. & Bennett-Gates, D.(2002). *Personality development in individuals with mental retard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Zigler, E., Bennett-Gates, D. & Hodapp, D. (1999). *Personality development in individuals with mental retard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Delphi study on development for personality instrument for students with mental retardation

Kim, Joung eun

Pusan National University

Kang, Young sim

Pusan National University

Lee, Mi a

Pusa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personality factor of students with mental retardation by specialities. In order to achieve the first purpose of this study, the delphi techniques was utilized to provide a standardized procedure for collecting data and reaching to a consensus agreement. Three rounds of Delphi questionnaires were designed and conducted. Participants were asked to provide the following inquires

Round I. state about personality of students with mental retardation.

Round II. rate participant' statement about personality of students with mental retardation

Round III. derive the final consensus agreement about personality of students with mental retardation

Twenty-four participants, whose specialties are special education professors, special educators, psychiatrists, parents, clinical pathologists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The finding for this study was composed of 8 factors(76 items) about personality of students with mental retardation. Therefore 8 factors: distractiveness, positive-reaction tendency, outdirectedness, impulsiveness, egocentrism obedience, motional lability, perseveration tendency were extracted.

key words : student with mental retardation, personality of mental retardation, Delphi study

논문 접수: 2007. 1. 31 심사 시작: 2007. 2. 20 게재 확정: 2007. 3. 23